

01

Problem

Part

문제 공감하기
정의하기

공문

개요

이 보고서는 사회 혁신가 양성 목적의 비영리단체 Dream Lab 소속 문화분과 연구팀의 연구 및 학습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공식 자료이다. 보고서는 크게 문제 분석 파트와 솔루션 설계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Dream Lab이 제시하는 연구 방식과 분석 도구를 기준으로 구분, 작성되었다. 연구팀은 사회문제에 대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4명의 현역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step1. 사회문제 탐색하기

① 사회문제 지도 그리기

첫 시작은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카테고리를 탐색하며 문제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문화라는 범주가 매우 넓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팀은 최대한 사고의 영역을 넓혀 문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모든 사회 이슈들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1. 다문화

가. 난민

- 1) 예멘 난민 문제 : 최근 국내에 예멘 난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난민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주요 사회적 논의로 떠오르고 있다. 난민은 무능력하고 독립성이 약하다는 편견¹⁾에 무분별한 이슬람 혐오와 정부의 특별취업허가제도에 대한 비판이 겹치면서,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 하자는 국민 청원 지지자가 5일만에 22만명을 돌파하는 등 반난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1) 이지예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 한국의 깊은 인종차별 보여줘" 뉴시스 2018.07.0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2_0000352271

상황이다.

나. 국제 결혼

- 1) 성 상품화 :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에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평가와 모욕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여성을 결혼을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며 단순한 외모 비하를 넘어서 성희롱 등에 가까운 표현이 SNS 댓글부터 광고²⁾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 2) 인종 차별 : 저소득층 국가 출신자를 멸시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사회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³⁾ 일부는 혐오와 적대적인 언행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이는 국제결혼 가정의 상호 신뢰관계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인종 차별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다. 이주노동자

- 1) 고용허가제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 조건을 갖추고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 측에서 이를 악용하여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다.⁴⁾ 또한 제도 자체의 적용이 까다로운 탓에 많은 근로자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⁵⁾
- 2) 단속추방정책 : 미등록 불법 체류 근로자를 적발하여 추방하는 정책으로 단속의 강도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강압적인 단속에 근로자의 부상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미등록 근로자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사업장들이 음지로 숨어들고 있어 근로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⁶⁾

2. 전통

가. 전통시장

- 1) 변화에 따른 쇠퇴 : 사회, 경제적 여건의 개선과 사람들의 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각 지역 기반의 전통 시장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현대적인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과 인터넷 등으로 인한 소비 채널의 다양화는 그간 접근성과 낮은 가격을 무기로 삼아왔던 전통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⁷⁾

나. 무형/인간문화재

- 1) 사회적 수요 감소 :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해외 문물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고유의 문

2) 황경주 “연예인 님은 아가씨”... 국제결혼 광고 성 상품화 심각” KBS 뉴스 2018.09.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2627>

3) 박현정 “결혼했을 뿐인데, 나는 소수자가 됐다” 한겨레 2017.09.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236.html

4) 고기복 “법에 없는 ‘수습기간’ 따지는데... 손 놓은 고용노동부” 오마이뉴스 2018.10.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2817

5) 이태수 “제주 식당 30% 외국인 직원 불법 고용, ‘엄격한 고용허가제 탓’” 연합뉴스 2018.06.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2/0200000000AKR20180612038400030.HTML>

6) 송찬영 “표류하는 농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데일리한국 2018.10.25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810/dh20181025094802137820.htm>

7) 오슬기, 나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비즈니스 컨셉 모델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45호), 2015.1,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092294>

화가 사회에서 외면 받고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가 지정 전문가이자 전통 문화를 이어가야 하는 인간문화재조차 전승자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평균 5명 중 1명이 전승 중단 위기에 있다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 2) 미흡한 정책과 제도 :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통 문화의 수요 증진을 목표로 하는 여러 장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낮은 편이다. 종사자들은 정부가 정량적 지표에 몰두한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미비한 문화재 관리 현황을 지적하고 있다.

3. 여가

가. 워라벨 불균형

- 1) 가치관의 변화 :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직장에서의 성공보다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행복한 삶'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낮은 연봉을 감수하면서도 적은 야근으로 생활의 여유를 즐기기를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⁸⁾
- 2) 기업 혁신의 필요성 : 워라벨의 실현에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으로 지나친 하향식 구조와 경직된 기업 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⁹⁾ 효율적인 작업 방식보다 오랜 근무 시간을 더 유능하게 보거나, 상사의 부조리한 지시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사내 분위기 예로 들 수 있다.

나. 장애인 이동권

- 1) 미비한 이동편의시설 : 2017년 국토부가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8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연간 타 지역 이동 횟수가 20회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는 장거리 이동수단인 기차, 고속버스 등에 승강 설비 등의 이동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4. 경제

가. 무분별한 상업화

- 1) 역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 : 젠트리피케이션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빈곤 계층의 거주지에 진입하여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상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존의 지역 거주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과 유입 계층의 빈부 격차를 악화시키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¹⁾

나. 공정무역¹²⁾

- 1) 공정하지 않은 공정무역 : 생산자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제

8) 박견혜 “워라벨 바람” 야근, 특근 No,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 시사저널 2018.02.03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3625>

9) 윤정원 “[카드뉴스] ‘워라벨’” 비즈니스플러스 2017.11.06

<http://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2>

10) 김혜미 “장애인, 지역 간 이동을 매우 낮아... 열악한 시외이동권 드러낸 ‘교통약자 실태조사’” 비마이뉴스 2018.04.0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056>

11) 최유희 “도시화의 그늘 ‘젠트리피케이션’” 뉴스포스트 2016.2.26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5>

12) 이용균 [공정무역의 가치와 한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 2호(2014) 99-117

공하고, 소비자에게 다소 높은 가격의 상품에 대한 '도덕적 소비'를 요구하는 공정무역이 점차 변질되고 있다. 그 이유로 물가상승 등 시장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고정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참여하는 대기업의 공정무역 실태 등이 지적되었다.

- 2) 인증 제도의 문제점 : 공정무역의 인증 제도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높은 비용, 소비자의 기호에 생산자가 종속되는 경향, 비현실적인 인증 조건 등의 한계로 공정무역의 본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미디어&인터넷

가. 디지털 범죄

- 1) 리벤지 포르노 :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유폐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발견하더라도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¹³⁾ 정부는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범죄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정보격차

- 1) 노인 소외 현상 :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존의 것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 격차에서는 특히 노년층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간단한 스마트폰 활용부터 중요한 모바일 의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 2) 접근성의 문제 : 정보화지수는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고, 사회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위치하며, 성별이 여성인 계층일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사회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더욱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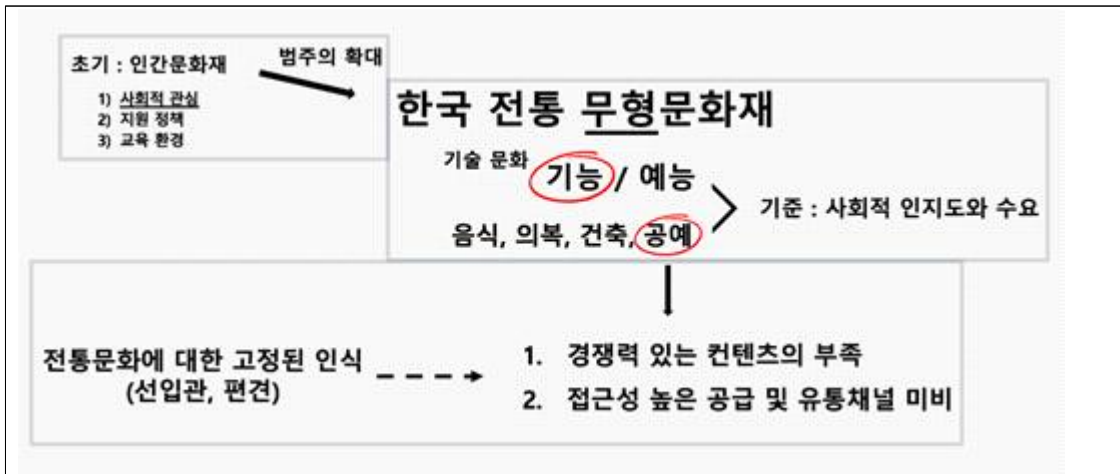
이후 두 번의 선택 단계를 거치면서 '나'의 무형/인간문화재가 사회 이슈 후보로 결정되었다. 초기 논의에서는 큰 범주에 전통문화를 전제로 놓고 그 중에서도 인간문화재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조사하며 문제의 구체화 과정을 시작했다.

② 문제 상황 구체화 및 공감하는 사회문제 카테고리 선정하기

1) Deep-down 리서치를 통한 문제 상황 팩트 체크

13) 윤서형 “늘어나는 리벤지 포르노, 해답은 ‘올가미 처벌’” 해럴드경제 2017.08.0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07000352>

14)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2016.12)



전통문화를 주제로 하는 문제 정의와 사실 확인은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논의 대상의 변경

초기 논의 대상이었던 인간문화재의 경우 크게 1) 전통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 부족 2) 부실한 지원 정책과 사회 제도 3) 전승자 및 교육 환경 탐색의 어려움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¹⁶⁾ 이 중 2)와 3)의 경우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충분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국 1)에서 파생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관심한 사회적 경향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인간문화재에만 해당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전통 문화라는 더 높은 범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팀은 주요 논의 대상을 인간문화재에서 전통 문화재 자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 기존의 논의 대상이 '전승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인간문화재고 보여지는 효과가 두드러지는 유형문화재에 비해 무형문화재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변경된 논의 대상은 전통 문화재 중 위와 맥락이 같은 무형문화재에 국한된다.

2. 타겟 설정

다음으로 대상으로 다룰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탈춤, 나전칠기, 종묘제례악 등 수많은 문화가 각각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채 문화재라는 이름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를 효과적으로 탐구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의 문화재를 다룰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전통 무형문화재를 분류할 때 쓰이는 가장 큰 틀 중 하나인 기능/예능의 기준을 적용했다. 기능 문화재는 형태가 있는 결과물(주로 유형문화재)을 개발, 제작,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적 측면이 강하고 예능 문화재는 음악, 놀이 등 결과물도 형태가 없는 예술적 측면이 강하다. 리서치 결과 팀에서는 1) 동적인 효과가 떨어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어렵고 2) 점차 기계에 의해 역할이 대체됨에 따라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상황 개선의 필요성이 중대한 기능 문화재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15) 김슬기 "이상일 의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초이스경제 2015.09.17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5>

16) 김은지 "허울만 좋은 '인간문화재'" 대학신문 2010.10.17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9>

가능 문화재는 다시 음식, 의복, 건축, 공예의 네 가지 카테고리 분류되었다. 타 문화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모두 비슷하지만, 각각 한식, 한복, 한옥 등으로 어느 정도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예 분야는 사회적 인지도가 더 낮고 매우 적은 수요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¹⁷⁾ 따라서 한국 전통 무형문화재 공예 분야가 팀의 연구 목표로 최종 선정되었다.

3. 문제 지점 탐구

마지막으로 타겟인 전통 공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찾고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내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 전통문화 자체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¹⁸⁾과 2)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소비하고 접할 수 있는 공급 및 유통 채널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¹⁹⁾는 점이다. 즉, 전통문화에는 일반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이가 곧 대중적인 수요로 이어지도록 하는 차별화된 강점이 부족하며, 대중에게 노출 및 소비될 수 있게 하는 홍보와 공급 채널이 적어 경쟁력 있는 몇몇 콘텐츠마저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기존 전통문화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전통을 각색이나 재해석하려는 변화의 시도들 역시 난관에 부딪혀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영향력²⁰⁾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고도의 경제 성장과 해외 문화의 유입으로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이른바 '옛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²¹⁾ 따라서 전통문화에도 (주로 부정적인) 편향된 시선이 덧씌워져서 문화를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방해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문제 카테고리 설정 및 공감 이유

Deep-down을 통해 최종적으로 설정된 사회문제는 아래와 같다.

- 대상 : 한국 전통 무형문화재 공예 분야
- 문제 : 내부 콘텐츠 / 공급 및 유통 채널

연구 대상을 공예 분야의 콘텐츠와 채널로 합의하기까지 총 세 단계의 절차에서 팀은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문화와 그 환경을 문제 해결의 기점으로 삼았다.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 감소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개선하려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전통 문화는 오늘날 수많은 문화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국가와 한국인이라는 국민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문화적 독창성과 고유한 의미를 담아내는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 문화는 과거의 우리 문화와 예술을 탐구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며 퓨전 등 여러 방식으로 미래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가치를 담고 있는 가능성이다. 단지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라지게

17) 황계식 "국내전통문화시장... 전체 문화산업 30%차지" 뉴스인사이드 2015.10.02
<http://www.segye.com/newsView/20151002003332>

18) 유동환 [한국 전통문화 유산 콘텐츠 개발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 제12집(2008)

19) 강현두 [전통문화의 발전과 홍보의 과제] 국학원논문집 제3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1)

20) 김광태 "문화적 편견 버려야 한국 전통문화 계승, 발전" 디지털타임스 2018.09.2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2802102119607001

21) 홍수영 "최종수'전통문화 옛것 치부하는 현실 안타깝다'" 동아일보 2010.10.08.
<http://news.donga.com/more9/3/all/20101008/31705861/1>

방치할 수만은 없는 존재인 것이다.

물론 문화도 하나의 산업이기에 없는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서 활성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한국의 전통문화에는 근,현대를 거치며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로 내몰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수정하고 전통 문화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는 필요하다

step2. [문제상황지도] 그리기

① 이해관계자 지도 - 문제 상황의 상호작용 파악하기

이해관계자 지도는 대상과의 상호작용 강도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자, 간접 이해관계자, 거시 환경의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또한 각 단계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을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었다.



1. 직접 이해관계자

가. 문화재 보유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인간문화재와 해당 무형문화재를 계승하기 위한 전수교육조교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현재 전통문화의 존속과 발전 흐름 전반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나. 공급 및 유통 채널

제품, 공연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통문화 관련 상품을 공급하고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생산과 홍보, 유통 등 전통문화 산업에서 일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 존재하는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다. 문화 수요층

전통문화에 대해 다양한 목적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계층이다. 가장 범위가 넓으며 문화 산

업의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원동력인 관심과 소비 증진의 원천이다.

2. 간접 이해관계자

가. 지원 및 연구 기관

전통문화를 직접 연구 및 학습하거나 관련 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지칭한다. 공인 전문가보다 규모가 크고 상품 개발이나 문화의 재해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문화를 다루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문화 관리 기구

문화 관련 정책, 시설, 법률 등을 관리하는 공식 기구들을 의미한다. 지원 및 연구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전통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 대중문화

이미 사회에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다른 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간 연계 상품이나 공동연구 등 전통문화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 연계 산업

전통문화 산업을 보조할 수 있는 전후방 연계 산업들을 의미한다. 여가나 디자인, 관광 등 전통문화가 해당 산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산업을 총칭한다.

3. 거시 환경

가. 법적 제도와 정책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전통문화를 다루기 위해 설정한 각종 규제와 정책들이다.

나. 사회적 인식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문화의 수요와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다.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지역 주민

수요의 여부와 관계 없이 전통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의미한다.

㉔ 고객경험지도 - 이해관계자 경험의 시각화를 통한 공감하기

고객경험 지도는 전통문화 산업을 구성하는 주축 중 대중(소비자), 연구 및 학습자, 전수교육조교 및 인간문화재(전문가)를 선정하여 진행했다.

단계	일반인	전통문화 전공자	전수교육조교 & 인간문화재
장소 & 이동경로	굿즈샵 OR 사이트	대학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장면 & 그림			
일어난 일 & 경험과 평가	보통 - 현대적인 느낌이 더해졌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색채가 강하고 실제 활용하기에는 일상과 멀어 보여서 낯설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긍정 - 저렴한 등록금, 졸업 후 진로 그리고 명장 양성 과정까지 소개된 것을 보고 이곳에서 공예 미술의 장인이 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부정 - 월 130 만원으로 미흡한 지원금 등 당국의 관심 부족과 미흡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가능했던 일 & 희망사항	무형문화재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체험해보고 싶다.	우수한 우리 전통 미술 공예를 학습하고 깊이 연구해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문화 양식의 진보를 이루고 싶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 현황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편리한 관리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안 / 못한 이유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일반적이다. 설령 알았다 해도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직 학습이 목표인 학생 신분이고 직접 문화에 종사해본 적도 없어서 실태를 알기가 쉽지 않았다.	정책 입안이나 개정 등에서 주어진 권한은 없고 요청 사항을 전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③ 페르소나 프로필 -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주요 특징을 정의하기

인터뷰 단계에 앞서 효과적인 대상 선정과 문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에 있는 많은 그룹 중 이후의 연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4개의 그룹을 선별해 각각의 페르소나 프로필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1. (공공) 관리기구, 2. 문화 향유층, 3. 지원 및 연구 기관 4. 문화재보유자가 대상

에 선정되었다. 이 프로파일은 각 그룹의 인터뷰 대상이 '한국 전통 무형 문화의 자생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1) 관리기구	
문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통 무형문화재가 현대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② 무형문화재 관련 축제, 공연 등 무형문화재 지원 정책을 꾸준히 기획하고 제안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얻지 못한다.
해결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형문화유산 포털 사이트를 관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② 문화재 보유자,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한다. ③ 전수교육관을 설립하고 인간문화재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발전방향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학교 내 조기 교육

2) 문화 향유층	
문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통문화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② 전통이라는 것이 친숙하지 않아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③ 실생활에 접목하기가 어렵고 전통문화 시장 규모가 작아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
해결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재청 시도문화재단 중 관련 기관에 연락한다. ② 전수교육관이나 협회에 찾아가 원하는 교육을 받는다. ③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기획한다.
발전방향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형태의 공연 / 무형문화재 관련 교육의 다양화 / 같은 흥미를 가진 개인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공동체

3) 지원 및 연구기관	
문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재 정책이 탁상 행정과 정량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② 각종 전통 예술이 연희성을 잃고 수요층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새로운 무형문화 자원을 발굴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킨다. ② 학술적 탐구를 통해 전승의 길을 넓히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발전방향	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전통 문화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 / 현대인들이 전통 무형문화재를 '명품' 처럼 인식하는 방향

4) 문화재 보유자	
문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통 문화를 경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다. ② 정부 지원 정책의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생계가 어렵다. ③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시도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② 현대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③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 및 개량하여 전통의 명품화를 도모했다.
발전방향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장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강화 / 마케팅 홍보 담당 부문의 활성화

step3. [대상자 인터뷰]를 통한 문제 검증하기

① 인터뷰 대상 선정 및 인터뷰 목적 정리하기



페르소나 프로필 작업에서 선정한 4개 그룹의 인터뷰 목적과 검증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관리 기구 : 전통 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의 효과, 개선을 위한 노력
2. 문화 수요층 : 전통에 대해 전반적 인식과 소비 규모
3. 지원 및 연구기관 : 한국 전통 문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유(컨텐츠, 채널 등의 현황 파악)
4. 보유자 : 무형 문화의 전승 중단 위기에 대한 의견, 필요한 개선 방안

[국가 무형문화재 소반 전수조교]

② 인터뷰 계획하기

1. 인터뷰 대상 및 일정	
보유자 - 소반 전수조교 장소 & 일시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8/7	
2. 구체적 페르소나 작성	
한국 무형문화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외부 환경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문가	
3. 인터뷰 목적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무실한 지원 정책과 복잡한 신청 절차 - 전통문화의 주 소비층과 반응 확인 - 현대 사회에서 무형문화재의 자생력에 대한 평가 및 보완점 - 한국 전통 문화의 홍보 방식에 대한 의견 	
4. 인터뷰 설계	
4-1. 인터뷰 형식	전수조교와의 오프라인 면접. 일반적인 문답 형식으로 진행.

4-2. 인터뷰 청사진	Part 1. 문화 콘텐츠로서의 자생력에 대한 평가 → 전승자의 유무 → 대중적 수요 현황 → 소반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 국가의 지원 및 관리 시스템 Part 2. 수요에 관한 사항 → 주요 소비 연령층 → 학습에 대한 소비자 피드백
4-3. 인터뷰 주의사항	문화재에 대해 질문자가 생각하는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5. 결과 별 방향성 예측	
5-1. 최선의 결과 및 향후 행동전략	- 공예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 전통 공예의 자체 콘텐츠와 유통 채널이 부족한 상황이다. 확인 후 연관 솔루션 설계, 소반 외에 다른 무형문화재들도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서 탐색한다.
5-2. 아쉬운 결과 및 그 대비책	예상 지점과 다를 경우 응답을 기반으로 문제를 재정의하고 한번 더 문제 탐색을 위한 인터뷰 시도

③ 질문 설계 및 인터뷰 실행하기

Q. 무형문화재가 처한 환경은.

A. 무형문화재는 이미 시장경제에서 대류에 합류하지 못한 문화이다. 그러나 사라지게 되서는 안되는 존재이기에 후대에까지 남겨지게 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이다.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Q. 방문자들의 주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A. 명확하게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 대중들은 전통 소반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Q. 왜 소반이 사라지고 있다 생각하는지.

A. 대량생산. 전통 소반은 가격과 실용성 측면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기예가 기계의 대량생산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Q. 지원해주는 협회나 단체가 있는지.

A. 진흥원이나 노동부처럼 지원해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신청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지원 조건이 복잡하다. 탁상 행정에 가까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

Q.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개선될 거라 생각하나.

A. 시대상은 바뀔 수밖에 없다. 억지로 이어가면 할 수야 있겠지만 힘이 부치는 일이다. 어떤 단체가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좋겠지만 그런 단체가 없었다.

Q. 주로 판매나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로들이 부족한가.

A. 예능에 비해 공예 분야는 직접적인 수요층이 나오기도 힘들고 판매처 등 추가적인 유통 경로가 필요한데 대부분 소규모이고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다.

Q. 젊은 예술인들과 협업을 해본 경험은 있는지.

A. 해본 적은 있지만 피로도가 적지 않게 쌓이는 일이다. 협업보다는 자기 어필에 목매는 느낌이다.

Q. 시도에서 여는 전시회나 공연에 얼마나 참가하나.

A. 무형문화재 내에서도 파벌이 형성되어 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끼리끼리 모이고 외부 집단을 크게 반기지 않는다. 때문에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크지 않다.

Q. 소반의 교육생들이 있는지?

A. 존재는 한다.

Q. 소반에 대한 수요는 어떤 상황인가.

A. 배우는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하는데 가격이 낮은 소반도 많다. 성공하는 전통 문화 종사자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열악하다. 먹고 살 방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Q. 관련 기관에게 바라는 지원은.

A. 현재 바라는 사항은 크게 있지 않다.

④ 인터뷰 결과 정리하기

1. 공예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다른 문화에 비해 대량생산이라는 현대 기술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면서 가격과 실용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뒤쳐지고 있다. 공예라는 특성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도 많지 않고 판매, 유통 경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2. 문화 자체의 콘텐츠와 유통 채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젊은 층은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아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경쟁력도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 공예 분야의 선정과 콘텐츠 및 유통 채널 문제에 대한 확인.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이후 다른 인터뷰에서 추가 검증할 예정.

[택견 보존회 사무국장]

② 인터뷰 계획하기

1. 인터뷰 대상 및 일정	
지원 및 연구 기관 - 택견보존회 사무국장, 서면인터뷰	
2. 구체적 페르소나 작성	
택견을 널리 알리고 관련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당사자	
3. 인터뷰 목적 정리	
무형 문화재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자체 콘텐츠의 경쟁력과 수요 - 주요 공급 및 유통 채널과 실제 효과 - 무형문화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과 조언 	
4. 인터뷰 설계	
4-1. 인터뷰 형식	직접 방문이 쉽지 않아 서면 인터뷰로 진행.
4-2. 인터뷰 청사진	Part 1. 수요 →수요의 목적: 주 참여자와 방문 목적 Part 2. 공급 및 유통 채널 →주 공급 경로의 양과 질 →현대 콘텐츠와의 협업에 대한 의사와 경험 Part 3. 콘텐츠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현황 →주요 소비 방식과 개선 방향 Part4. 발전방향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 해결방향
4-3. 인터뷰 주의사항	추가 질문이 불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질문 설계.
5. 결과 별 방향성 예측	
5-1. 최선의 결과 및 향후 행동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와 공급 채널 중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선정한다. - 각 문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정리한다. 이후 하나의 방향을 정해 논의 진행
5-2. 아쉬운 결과 및 그 대비책	콘텐츠와 공급 채널 중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르지 못할 경우 1)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2) 종합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 도출을 시도한다.

㉓ 질문 설계 및 인터뷰 실행하기

Q. 주 고객 / 참여자 / 방문자는 누구인가.

A. 문화재청 등의 지원을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택견 보급 사업을 한다. 이수자나 전수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찾아온다.

Q. 주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

A. 택견을 궁금해 하거나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Q. 작품 공연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 함께 협력하거나 지원을 주는 단체가 있는지.

A. 주로 택견 전체 수련과정을 선보이는 공연을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유산원, 한국문화재단 등이 지원한다.

Q. 젊은 예술인들과 같이 전혀 새로운 분야와 협업해본 경험이 있다.

A. 사물놀이, 비보잉 댄스 팀과의 협업 경험이 있다. 지속적인 협력은 희망하지만 예산이나 택견 모습을 녹여내는 방식, 원로 전승자들의 거부 의사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Q. 택견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A. 공간은 주어져 있지만 지자체 관할이라 그쪽 사업에 주로 이용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한 사용이 어렵다. 전승교육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문화공연 사업 지원에서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Q. 택견이 더 많은 관심과 수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전형을 유지해야 하고 생업이 달려 있는 전승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다. 전형의 유지와 새로운 사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승자 생활 보존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공연예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Q. 택견이 대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지고 소비되면 좋을지.

A. 한국적 전통을 기반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전통무예 라는 컨셉으로 다가갔으면 한다. 일반 대중에게 생활 속의 건강 무술인 전통 문화로 인식되면 좋을 것 같다.

Q.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지자체의 무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형 유산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보존 단체이지만 유사 단체들은 상업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자체가 주로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고 있어 보존회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장기적으로 무형 유산의 변질과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

Q. 정부의 경제 혹은 정책적인 지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A. 사업 지원이 아닌 생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관련 인력들이 생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추가적인 인력 공급이 줄어들고 어떤 사업도 진행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④ 인터뷰 결과 정리하기

1. 콘텐츠와 공급 채널 중 더 문제가 되는 부분 선정

수련과정을 선보이는 게 전부인 공연 방식이나 사용할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 양쪽 다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무형 유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인식이 무형문화재의 상황을 악화시키

고 있다.

2. 각 문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공급 채널 확보보다는 택견에 대한 지자체와 사람들의 기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중요한 시사점으로 남은 만큼 이를 주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추가 인터뷰 필요.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

② 인터뷰 계획하기

1. 인터뷰 대상 및 일정	
공급채널 - 전통문화콘텐츠 박물관 학예사, 서면인터뷰	
2. 구체적 페르소나 작성	
전통문화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사람들에게 알릴 홍보 방식과 새로운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	
3. 인터뷰 목적 정리	
콘텐츠/공급 채널과 인식 개선 중 방향 설정 -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검증 - 충분한 콘텐츠와 공급 채널 유무	
4. 인터뷰 설계	
4-1. 인터뷰 형식	직접 방문이 쉽지 않아 서면 인터뷰로 진행.
4-2. 인터뷰 청사진	Part 1. 수요 → 수요의 목적: 주 참여자와 방문 목적 Part 2. 공급 및 유통 채널 → 주 공급 경로의 양과 질 → 현대 콘텐츠와의 협업에 대한 의사와 경험 Part 3. 콘텐츠 →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현황 → 주요 소비 방식과 개선 방향 Part 4. 발전방향 →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 해결방향
4-3. 인터뷰 주의사항	추가 질문이 불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질문 설계.
5. 결과 별 방향성 예측	
5-1. 최선의 결과 및 향후 행동전략	A.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B. 콘텐츠와 공급 채널 중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선정한다. A와 B 중 하나로 문제 인식 완료 후 솔루션 설계 시작

5-2. 아쉬운 결과 및 그 대비책	인식 개선이 주요 문제가 아닌 경우 콘텐츠와 공급 채널에 대한 논의 재시작.
---------------------	--

③ 질문 설계 및 인터뷰 실행하기

Q. 작품 공연이나 전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 함께 협력하거나 지원을 주는 단체가 있는지.

A. 특정 단체는 없고 매년 자체 기획을 통해 전시를 준비한다.

Q.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무형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나.

A. 타 기관이 할 수 없는 곳,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자료들에 집중한다. 그래서 '안동의 제사'에 관한 전시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전시라는 평을 많이 받는다.

Q. 문화와 관련된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나.

A. 안동은 전국에서 등록문화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인류무형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다. 언뜻 보면 고리타분하고 볼 것이 없는 듯하지만, 들여다보면 무궁무진하고 재미있는 문화들이 많다.

Q. 실제로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A. 한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알고 있으니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시대의 사람들이 관심 갖고 알기 쉽게 지역의 자산을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Q. 해당 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명분과 가치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역인의 태도, 방문객 위주의 친절한 정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Q.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A. 특별한 문제나 피해는 아니지만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무관심이 최대의 난제이다.

Q. 정부의 경제 혹은 정책적인 지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나.

A. 문화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단순 성과 지향 정책이나 예산 나누기 식의 접근보다 지역과 국가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④ 인터뷰 결과 정리하기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무형 문화 전반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시했다. 자체 기획 전시에서 안동 제사에 대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등, 자세히 알아보면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 도태되고 있는 전통 문화가 많은 상황이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과 가치의 강조보다는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총평

초기에 의도했던 이해관계자 각 집단에 맞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상의 제약으로 실패했지만, 여러 종류의 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팀이 세웠던 가설과 근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전통 무형문화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실과 그 원인이 콘텐츠 부족, 지원 미비 등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무엇보다 인터뷰 중 응답의 많은 비율이 공공 기관의 비효율적인 정책과 전략을 비판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었다. 전통 문화를 소비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전통이 현대에 비해 많은 면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들에게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팀은 이같이 민간에서부터 공공 기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전통 문화에 대한 무관심이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step4. Problem Part 정리하기

① Problem Part 보고서 요약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민족은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적이다'로 정의될 수 있는 전통은 한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예술과 역량을 잃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었으며 오늘날에는 현대적 기술 및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한국의 멋'을 창조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문화는 현재 장기적인 전승과 유지, 발전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투명한 미래에 놓여 있다. 이는 해외 문물의 유입과 경제 성장 등 60-70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옛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차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 문화 역시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갔으며 '원형 보존'이라는 목적 때문에 문화의 각색과 융합도 어려워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부족으로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는 위기를 맞는 상황이다.

팀은 이러한 전통 문화의 가치와 현황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전통 문화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부분을 선정해 문제 분석과 개선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인간에 의한 관리, 즉 전승과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무형문화재가 일차적으로 선택되었고 추가 논의를 통해 그 중에서도 상대적 인지도와 수요가 가장 낮은 공예 분야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문제 분석 과정에서 팀은 한국의 전통 공예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나 공급 채널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했다.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소비를 창출할 콘텐츠가 공예 분야에 부족하며 있더라도 그것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경로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옛 것'에 대한 편견으로 전통 문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이후 팀은 설정한 문제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거치며 공예 분야의 열악한 현황과 콘텐츠 및 공급 채널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전에는 깊게 논의되지 않았던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근원적이고 심각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팀은 '소비성 문화 콘텐츠 및 공급 채널의 부족',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통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의했다.

② 문제문장 정의하기

"한국 전통 무형문화는 대중문화 콘텐츠로서의 자생력이 부족하다."